

난치병 일가족의 비애

희귀병 근이영양증 몸무게 28kg 30세 여성 치아 뽑다 숨겨 같은 유전병 어머니·언니 떠나보내고 아버지는 암으로 사망

지난 30일 오후 광주시 북구의 한 장례식장. 30대 젊은 여성의 영정사진을 유족 몇명이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조문객은 단 한명도 없었고, 빈소를 지키는 사람도 유족 3명뿐이었다.

고인의 유일한 혈육인 외삼촌(66)은 “조문객이 없을 듯해 음식도 많이 준비하지 않았다”면서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말고, 아빠, 엄마, 언니와 함께 행복하게 지냈으면 한다”며 울먹였다.

희귀 난치병과 홀로 맞서오던 30대 여성이 합병증으로 찾아온 총치치료 도중 숨졌다.

근이영양증(퇴행성 근육병증)을 앓던 이 여성의 어머니와 언니도 같은 병을 앓다 숨졌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 30일 광주북부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29일 오후 4시1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치과병원에서 정씨(여·34)씨가 이를 뽑다 갑자기 호흡근란을 일으켰다. 정씨는 119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2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6시께 숨졌다.

태어날 때부터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었던 정씨는 심한 총치 때문에 잠을 설칠 정도였지만, 거동이 불편한 탓에 치과진료조차 받지 못하고 미뤘었다고 한다.

정씨는 20년 전 아버지를 암으로 떠나보낸 이후 같은 병을 앓고 있었던 어머니와 두 살 위 언니를 의지하며 살아왔다. 그녀는 5년 전까지만 해도 복지관에서 빵을 만드는 일을 하기도 했지만, 최근 건강이 악화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왔다.

정씨의 건강은 엄마와 언니가 지난 2015년과 올해 9월 연이어 근이영양증을 앓다 숨진 이후 부쩍 나빠졌다.

정씨는 특히 같은 방을 쓰던 언니가 두 달 전 눈 앞에서 쓰러져 숨진 이후 큰 충격을 받았다.

밥 맛을 잃어 거의 식사도 못했고, 열심

? ‘근이영양증’ 근육을 유지하는 단백질의 결핍으로 근력이 떨어지다 결국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병이다.

‘근디스트로피’(muscular dystrophy)라고도 불리며 근육이 점점 위축되다 결국 폐렴, 심장마비, 호흡곤란 등 합병증으로 사망한다. 병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리를 잘하면 30세 이후까지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치료제가 개발돼 있지 않다. 지난 2013년 프로게이머 박승현도 이 병으로 숨졌다.

히 나가던 성당에도 발길을 끊었다. 10월 들어선 활동보조인의 도움 없이는 외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쇠약해졌고, 집에서 TV를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게 유일한 낙이 됐다.

그녀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연금 등 매달 80여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기는 했지만, 병원비 등을 제외하면 기본 식료품조차 사기 힘들 정도로 극빈한 삶을 견뎌야 했다.

최근에는 합병증으로 찾아온 총치와 치통까지 그녀를 괴롭혔다. 여러 치아를 총치가 파고들면서 음식을 씹을 수조차 없게 된 정씨는 죽으로 버티며 간신히 살을 이어갔고, 반찬 등은 아예 먹지도 못했다. 키 150cm의 정씨는 숨질 당시 몸무게가 28kg에 불과했다. 그리고 주변의 도움으로 지난 29일 버리고 버리던 총치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지만, 정씨의 마지막 나들이 길이 되고 말았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정씨를 부검하기로 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술자리 시비 친구 집단폭행·33시간 감금

광산경찰 1명 구속·3명 입건

광주광산경찰은 지난 30일 친구를 집단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공동상해·공동감금)로 A(19)군을 구속하고 10대와 20대 등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7월 7일 밤 11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어린이공원과 인근 골목에서 B(18)군을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일부는 폭행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어 B군이 살고 있는 광주시 광

산구 원룸으로 끌고가 1시간 넘게 폭행하고 33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이들에게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감시를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갈비뼈가 골절된데다 뇌진탕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경찰에서 ‘B군이 술자리에서 버릇이 없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아이들의 따뜻한 나눔 “사랑의 동전모금함 개봉했어요”



꼬마박사 어린이집 원생과 직원들이 지난 30일 광주시 북구 중흥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사랑의 동전모금함 개봉식에서 1년 동안 저금통에 모은 동전을 꺼내보이고 있다. 이들의 성공은 연말 불우이웃에게 전달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서민 주머니 텅 500억원 선물투자 사기

고수익 미끼 8년간 479명 피해

결혼자금·전세금 등 날려

광주지검, 대표·실장 구속기소

광주·전남 등 전국을 무대로 8년간 500억대 읍선·선물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특히 목돈이 없는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일정 기간 소액 투자금을 분할 납부받는 이른바 ‘적립식 투자방식’을 동원,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검찰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선물·읍선 투자명목으로 원금 및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 수백억원을 끌어모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특

경범죄 사기 등)로 대표 이사 전모(46)씨와 실장 장모(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투자자 모집책 등 8명도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미인가 투자회사를 세워 ‘선물·읍선에 투자하면 원금과 연 15~18% 수익을 보장해준다’며 479명으로부터 493억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하면서 원금 반환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투자자들에게 “운만 좋으면 수십·수백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금을 유지해 총 300억원대의 손실을 냈다.

이들의 꾀에 빠진 투자자들은 결혼자

금, 물론 전세금, 교통사고 사망보상금까지 투자했다가 되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대표 전씨는 국내 유명대학 졸업과 전 자부문 대기업·투자증권·보험사 근무 경력 등을 내세워 대학 동기나 재력가 등을 상대로 118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았으며, 보험회사 출신인 실장 장씨는 역대 연봉을 받았던 보험설계사 경력을 바탕으로 보험 고객, 교회 신도, 지인 등 서민들을 상대로 286억원의 투자를 유도했다. 장씨는 수수료로만 50억원 가까이 챙겼으나 손실이 지속하면서 자신의 재산도 모두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현재 총 493억원의 투자금 중 지난 8년동안 200여억원은 수익금 등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300여억원은 선물·

읍선 투자과정에서 모두 날려 현재는 무일푼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고수익은 반드시 고위험이 동반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등을 권유받을 경우 신중하게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최근 서민의 채테크 욕구를 악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금융경제사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추가 수사를 통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상가 상습纵도둑들 ‘딱 걸렸네’

○~최근 목포·무안 일대에서 기승을 부리던 상가털이범이 연이어 붙잡히면서 지역 상인들이 안도의 한숨.

○~지난 30일 목포·무안경찰에 따르면 이모(26)씨는 지난 10월 10일 새벽 1시 30분께 목포 한 횡집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4만원을 훔치는 등 한달여간 14회에 걸쳐 29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박모(19)군은 지난 7월24일부터 최근까지 무안지역에서 7차례에 걸쳐 570만원 상당 금품을 훔쳤다는 것.

○~연이은 절도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통해 용의자를 추정한 뒤 스마트폰 위치추적, SNS ‘페이스북’, 온라인 게임 로그인 기록 등 다각적 통신수사를 통해 이들을 검거.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

부동산 투자 !
최 선 규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오천경매 H. 010-3605-5000